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土種 홍화씨
합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 지리산자락 합양산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의 재배 전통
● 원조국 품내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인터넷 전자신문 현대불교 http://www.buddhapia.com

“정보는 사찰에 있어야 가치있다”

도난정보 90%
제자리 못찾아
‘복장터질 노트’

도난정보 압수한후
소재 명확해야 귀속

대검찰청 압수물 창고. 20일 이후 이 창고에는 정보박물관을 연상케 할 정도로 많은 문화재급 유물들이 들어왔다. 바라보기만 해도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불화와 옛 불자들의 손때가 묻은 경전류들이 제자리를 떠나 창고에 보관된 모습이 안스럽기만 했다. 20일 서울지검 형사 5부(담당검사 최순용) ‘문화재 전담반’ 이 국보·보물급 문화재만을 도굴해 밀매해 온 손수순(64) 씨 등 문화재 전문탈이범 9명을 적발해 압수한 200여점의 문화재를 가운데 정보가 33점(도표 참조)이나 포함된 것.

손씨등이 97년 3월 경주기림사 석가모니 불상(보물958호)의 어깨부분을 뜯어내고 훔쳐 갔던 금니천통행화와 묘법연화경등 10여종의 유물들, 선암사에서 도난당한 53불화도 일부(2쪽), 소재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4점의 복장유물과 탱화, 경전류들.

불자들이 고운 금본으로 그려진 천통행화나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전류들을 만나야 할 곳은 사찰이다. 그러나 이들 정보들은 문화재 탈이범들에 의해 우리곁을 떠났었다. 검찰의 수사로 다시 세상에 그 찬연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자칫 사찰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불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기림사나 선암사에서 도난당한 정보들은 원래 소재지가 파악되고 범인들의 자백이 있을 경우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정보들이 사찰로 돌아가는 길은 멀기만 하기 때문이다.

있는 것은 잃어도 찾는 것은 없는 것이 정보문화재다. 절도범을 잡기도 힘들지만

◇압수한 정보문화재

기림사	은종경 1권 묘법연화경 6권 능엄경 1권 금강경 1권 불경 1권 단경하 1권 대방광불화엄경(권35) 1책 대인아비라밀다경(권175) 1책 복장유물 1점
선암사	선암사 53불화도(일부) 2쪽
미확인	복장유물 4점 신종도 1점 천수관음보살도 1점 대인아비라밀다경(권35) 1책 대방광불화엄경 7권 묘법연화경(권1~7) 2권 천수대승법수(권1~11) 1권

기림사 복장유물등 돌아온 정보 33점



◇문화재 전문가들이 부처님 복장에서 출친 복장유물. 소재 사찰이 확인되지 않으나 정보가 있던 곳은 전통사찰이므로 당연히 조계종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불자들은 말한다.

잡은 후 도난 문화재를 회수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미 밀매되었거나 해외로 밀반출 되었을 경우에는 영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설사 도난 정보들이 수사기관에 압수되더라도 다시 사찰로 회수에 오기는 쉽지 않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사찰에서 정보 도난 자체를 모르거나 실사 발견해도 종헌·종법에 따른 행정처벌이 두려워 ‘항구’ 해버린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보·보물등 지정문화재 이외에 비지정 문화재는 도난을 당한 사찰 스스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국가에 몰수되거나 절도범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그야말로 ‘복장 터질 노트’ 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엔 압수된 정보문화재 역시 피해 사찰이 나서지 않는다면, 우여곡절 끝에 귀속·기소할 범인들이 무혐의로 풀려날 뿐만 아니라 도난 문화재가 ‘범인’에게도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씨 일당이 ‘압수된 정보문화재 모두 10년 전 구입했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계종 총무원도 “도난 정보문화재중 90% 가량이 원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도난 당한 정보의 원래 소재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더라도 전통사찰이 아니면 그런 유물이 있을지 만무하고 전통사찰의 거의 대부분이 조계종에 소속돼 있다. 조계종의 재산이란 얘기가. 조계에서는 “정보문화재는 법 처원을 떠

나서 불교계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복장유물의 경우 문화재적 가치보다는 신앙의 대상 즉, 불교의 성물인 만큼 불교계에 귀속되고 정보박물관이나 중국 대박물관 등에서 보존·전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단 내에서도 정보를 도난 당했을 경우 처벌을 앞세우기보다는 빠른 신고체제와 관계기관과의 협조등 회수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엔 압수된 정보 대부분이 복장유물인 만큼, 지금까지 복장물이 털렸던 사례를 토대로 정보문화재위원들이 역추적해 피해 사찰을 밝혀내고, 범종단적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보 33점을 되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적정당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해야 한다는 것이 교계의 중론이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압수한 복장유물중에는 묘법연화경등 경전과 두루 많이 경전도 다수 포함됐다.



◇기림사 복장유물중 금니천통행화의 부분. 훼손이 심하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도난 예방지침

1. 문화재 절취, 도굴 사건이 주로 발생하는 00:00~04:00 사이 순찰시간을 수시로 변경하여 순찰.
2. 취약지역내에 위치한 석불상등은 연고자들로 하여금 관리토록 행정지도.
3. 법당 및 문화재보관시설에 대한 시정장치 및 보관시설장치를 점검 보장.
4. 경보장치 이상유무 확인 및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치.
5. 사찰 거주인 대상으로 사찰문화재 보호감시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감시반 운영, 사찰 내방객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
6. 사찰소재 주요 문화재는 정밀 사진과 인화필름을 비치하고 그 규격, 양식, 재원도 기록·보존.
7.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은 인상착의, 차량번호 등을 확인·기록.
8. 사고 발생시에는 경찰서등 수사기관에서 현장감정할 때까지 도난현장을 그대로 보존.
9. 취약지역에 소재한 문화재 등에 인근주민, 문화재 명예관리인등 감시체제를 구축, 관찰과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9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수관음보살도. 소재사찰이 확인되지 않는다.



◇선암사에서 도난당한 53불화도중 7불행화의 일부. 1702년적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문화재담당 최순용 검사 “사찰방법 강화 정보도난 예방”

“713호실에서 도굴범들과의 ‘입씨름’으로 6개월 남짓 보냈지만, 불자로서 당연히 부처님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 도굴의 ‘선수급 탈이범’ 손수순(67) 씨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서 정보문화재 33점등 시가 1백여원에 문화재 200여점을 되찾은 최순용(37) 검사.

서울지검 713호실은 최검사의 직무실이자, 전국 시·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재 전문 검사들의 ‘사령부’다. 바로 이곳에서 최검사를 중심 축으로, 검·경찰 및 문화재관리국의 사범단속반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 전담반’이 수개월동안 손씨 등을 조사·추적해 왔다. 도난된 정보문화재의 연평균 회수율은 2~3점에 불과했다.

최검사는 “문화재 전문가들과 공조 수사를 하며, 문화재 사범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추적하는 것은 문화재를 지키는 차선책”이라며 “사찰에서 방범 기능을 강화해 문화재 도난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최검사는 “복장유물의 경우 피해를 찾기 어렵겠지만, ‘천수관음보살상’ 등 탱화 2점을 소장했던 사찰이 밝혀질지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인사 대적광전 팔상탱중 비림강생상(毗臨降生相) (부분). 1882년.

두 성인 길에서 태어나심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30 탄생

평생을 길에서 보내며 정법을 펴 온 부처님과 예수님의 탄생에는 공통점이 있다. 두분 다 태어남부터 길에서 시작했다는 점이다.

카필라성의 축제가 끝나는 날, 흰 빛깔의 잘 생긴 코끼리 하나가 오른쪽 갈비를 헤치고 태어 들어가는 꿈을 꾸 마야왕비는 태기가 있게 된다. 열달 후 왕비는 당시 풍속에 따라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고자 길을 떠난다. 아름다운 꽃들과 온갖 새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풀비니동산에서 밭을 밟은 왕비는 꽃이 활짝 핀 무우수 가지들 잡으려고 팔을 뻗어올리자 가지가 스스로 내려와 왕비의 손에 닿았으며 그 꽃가지를 잡

자 신기가 와 왕비는 아기를 낳았다. 이 아기가 나중엔 부처님이 되는 신타타 태자다. 왼쪽 그림은 마야부인이 풀비니 등산에서 무우수 꽃가지를 잡고 열구리로 신타타 태자를 낳는 장면을 그린 ‘비림강생상(毗臨降生相)’이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러 고향에 가는 도중 마리아가 산기를 느껴 목을 긁을 곳을 찾으나 땅이 없어 할 수 없이 말구유에서 아기를 낳는다. 오른쪽 그림은 소와 말이 있는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향해 두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



◇모티엘리작 ‘신비로운 탄생’ (부분). 1500년. 런던 국립박물관 소장.